

2020년 미래비전 및  
2020 경영목표 설명회

“콘텐츠, 디지털, 글로벌,  
No.1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

2020년, 미래비전 및 2020 경영목표 설명회가 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13층 SBS홀에서 SBS 임직원 및 SBS 콘텐츠 허브, SBS A&T, SBS M&C, DMC미디어 등 자회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정훈 사장은 2019년의 각 부문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4년 연속 프라임타임 2049 시청률 1위를 달성했고 파워FM은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은 디지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로 wawe가 출범 후 유료가입자 2배 이상을 달성했고, 그룹 유튜브 매출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고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요 방송사가 대부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SBS는 1등 경쟁력, 디지털 유통 실적 개선, 비용 절감,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소폭의 영업이익 달성이 전망된다며 구성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박정훈 사장은 2020년 경영목표로 첫째, 콘텐츠 경쟁력 최우선, 둘째, 디지털 성장 가속화, 셋째, 글로벌 챌린지 확대, 넷째, 지속가능한 흑자기반 조성, 네 가지를 내걸었다.

박정훈 사장은 공정방송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고, 1분기에 출범예정인 드라마 스튜디오를 통해 우수 제작요소 확보 및 슈퍼 IP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운용 및 유통 전략을 수립하고 다가오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평창올림픽에 이어 1등을 수상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wawe 가입자를 확대하고 유기적인 유튜브 콘텐츠 통합 운영과 디지털 제작 역량 제고 등 디지털 성장을 가속화 시키는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디지털 매출성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남아 공동제작 확대 등 글로벌 유통 구조 혁신을 본격화하고 드라마 스튜디오를 통한 글로벌향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노사화합, 광고 턴어라운드 실현, 외부 투자협력 확대, 통합 콘텐츠 마케팅, 규제 해소, 자회사 동반 성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흑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사장은 “올해는 창사 30주년의 해이면서 미디어 업계의 빅뱅이 일어날 해다. SBS가 생존하느냐 성장하느냐 몰락하느냐 기로에 서있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며, 화합과 신뢰의 문화를 구축해 직원들이 행복한 1등 기업을 만들자.”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2019년 하반기 작품상 등 시상식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9 하반기 작품상 최우수상  
〈배가본드〉(유인식)

2019 하반기 작품상 우수상

〈SBS스페셜〉 ‘요한, 씨들, 용현’ (이근별) | 〈라이프 오브 사만다〉(주시평) | 〈런닝맨〉(정철민) | 〈VIP〉(이정림) | 〈이재익의 정치쇼〉(이재익, 이준원) | 〈돈워리스크〉(하현중) | 〈홍디션〉(김재혁) | 〈모디션〉(김한진)

2019 하반기 작품상 특별상

〈미운 우리 새끼〉 작가 육소영 | 〈집사부일체〉, 〈리틀포레스트〉, 〈배가본드〉 출연자 이승기 | 〈배가본드〉 작가 장영철, 정경순

2019 하반기 인센티브상

〈미운우리새끼〉, 〈런닝맨〉, 〈집사부일체〉, 〈백종원의 골목식당〉,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불타는 청춘〉,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라이프 오브 사만다〉, 〈VIP〉, 〈배가본드〉

2019 시청자만족도(ASI) 대상

〈그것이 알고 싶다〉

2019 하반기 비전실천상

정책팀 임상현 | 콘텐츠프로모션팀 이두리 | 교양2CP소속 조상연 | 예능1CP소속 박소현 | 드라마2EP소속 한태섭 | 라디오2CP소속 최다은 | 8뉴스부 김현우 | 인사팀 최서윤 | 미디어IT팀 이영환

2019 하반기 특별공로상

SBS M&C 콘텐츠솔루션2팀 황은상 | SBS A&T 영상제작1팀 최성기 | SBS A&T 제작CG팀 이준석 | SBS 디지털뉴스랩 전략콘텐츠팀 홍민지, 이은재

2019 4분기 특종상

금상: 박상진, 임찬중, 박원경, 김기태, 전형우, 이현영, 안상우, 원종진  
은상: 고정현, 안희재  
동상: 이성훈(스포츠채널부), 유병민, 김정우

2019 4분기 기획보도상

금상: 김수형, 박세용, 박수진  
은상: 김관진, 박찬범, 김형래  
동상: 권지윤, 민경호

2019 4분기 뉴미디어상

금상: 손승욱, 안혜민  
은상: 박수진  
동상: 신정은



# 온 국민이 다시 낭만에 빠져든다... 낭만닥터 김사부 2

시즌 1보다 탄탄한 서사와 출연진 보강으로 心 스틸 예고



3년여를 기다려온 <낭만닥터 김사부>가 돌아온다. 1월 6일(월)부터 방송되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2는 2016년 11월~2017년 1월 방송돼 2049 시청률 평균 10%를 넘기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낭만닥터 김사부>의 두 번째 이야기다.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로,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한석규 분),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 외과 펠로 2년 차 차은재(이성경 분), 행복을 믿지 않는 시니컬한 수술 천재 서우진(안효섭)이 만나 인생의 '진짜 낭만'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내용이 담긴다. <제빵왕 김탁구>, <구가의 서>, <가족끼리 왜 이래> 등을 쓴 강은경 작가와 <배가본드>, <자이언트>, <샐러리맨 초한지>, <돈의 화신> 등을 연출한 유인식 감독,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한석규가 시즌 1에 이어 2020년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간다.

시즌 1에서 돌담병원을 책임졌던 원년 멤버들은 최강 팀워크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독심과 의리, 사명감까지 갖춘 수간호사 오명심 역 진경, 우유부단한 행정실장 장기태 역 임원희, 마음 따뜻한 프리랜서 마취과 담당의 남도일 역 변우민, 김사부로 인해 병원장 연임에 실패한 권모술수의 대가 도윤완 역 최진호는 묵직하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또한 정의롭고 책임감 강한 간호사 박은택 역 김민재, 돌담병원에 파견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인수 역 윤나무는 시즌 1에서의 환상 케미를 이어간다. 여기에 이성경, 안효섭을 필두로 김주현, 신동욱, 소주연, 박효주 등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했다. 이성경과 안효섭이 분한 차은재와 서우진은 김사부를 만나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모든 '어른이들(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위로와 낭만을 선물한다. 김주현은 거대병원으로부터

돌담병원의 응급외상센터를 시험 가동하라는 명을 받고 내려온 부원장 박민국 역을 맡아 김사부(한석규)와 대립한다. 신동욱은 돌담병원 정형외과의 '뼈덕후' 배문정으로 출연한다. 수려한 외모와 인성으로 못 여성들의 사랑을 받지만, 이성보다 '뼈'를 더 사랑하는, 일명 '뼈쌤'이다. 또한 소주연은 응급의학과 보드 시험을 앞둔 전공의 4년 차 윤아름 역으로 출연하며, 박효주는 권위적이며 방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대병원 마취과 선생 심해진 역을 맡아 박민국(김주현)의 스태프로 돌담병원에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드라마 관계자는 "시즌 1보다 더욱 박진감이 넘치는 흥미진진한 서사와 깊은 대사, 유쾌한 웃음과 가슴 먹먹한 울림이 기다리고 있다.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새해 초 안방극장에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안겨줄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2는 매주 월, 화 밤 9시 40분에 방송된다.

## SBS, 베트남 이어 인도네시아판 <런닝맨> 공동제작 나선다

인구 2억 7천만... 동남아 한류 견인하는 데 큰 역할 기대



SBS가 인도네시아판 <런닝맨> 공동제작에 나선다. SBS는 지난 11월 29일(금) 목동 SBS 사옥에서 인도네시아

사업자인 FCL과 <런닝맨> 인도네시아 시즌 1 공동제작 딜메모 체결식을 가졌다. FCL은 인도네시아 재계 4위 대기업인 시나르마스 그룹의 투자회사로 OTT 사업을 비롯하여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런닝맨> 시즌 1은 2020년 중순에 인도네시아 지상파/OTT 방영을 목표로 제작할 계획이다. 베트남 <런닝맨>의 성공에 힘입어 동남아 전체에 <런닝맨> 콘텐츠 파워가 제고된 가운데, 이번 인도네시아 <런닝맨> 공동제작은 <런닝맨> 동남아 공동제작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인구(약 2억 7천만 명)를 보유한 동남아의 중심 국가인 만큼 동남아 한류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콘텐츠biz팀 김용재 팀장은 "SBS가 중국, 베트남에 이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도 본격 진출하게 됐다. 3년여에 걸친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진출한 만큼 반드시 성공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CL의 OTT 브랜드인 Genflix 대표 Jimmy Kim은 "<런닝맨> 인도네시아는 OTT가 급성장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방송과 OTT가 결합된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SBS는 인도네시아 <런닝맨> 공동제작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토코피디아와 손잡고 콘텐츠 커머스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스포츠 예능이란 바로 이런 것! <진짜농구, 한섬타이거즈>

농구계 전설 서장훈의 감독 데뷔작 1월 10일(금) 첫 방송



SBS가 2020년 야심 차게 선보이는 새 예능 <진짜농구, 한섬타이거즈>(이하 <한섬타이거즈>)가 1월 10일(금)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한섬타이거즈>는 농구 코트에서 벌어지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리얼 농구 예능

프로그램으로, '전설의 농구스타' 서장훈이 감독으로 농구 코트 복귀를 알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 프로농구 역사상 최다 득점(1만 3231점), 최다 리바운드(5235개)에 빛나는 최고의 농구스타였던 서장훈은 다소

침체에 빠진 한국 농구에 힘을 불어넣고자 아이디어를 냈고, 또 직접 출연을 결심했다. 또한 선수를 꿈꿨던 적이 있을 정도로 농구에 열정적인 멤버들을 직접 수소문하며 선수단을 꾸렸다.

서장훈 감독과 함께할 멤버로는 SBS 월화드라마 <VIP>와 SBS 간판 예능 <집사부일체>에 출연 중인 배우 이상윤과 '농구천재'를 꿈꾸는 아스트로 차은우를 비롯해 배우 서지석, 김승현, 강경준, 줄리엔강, 소리, 유선호가 출연한다. 또한 '히든 멤버'로 배우 이태선, 모델 문수인도 함께하며, 레드벨벳 조이가 <한섬타이거즈>매니저로 유쾌한 에너지를 보탠다.

<한섬타이거즈>를 기획한 안재철 PD는 "서장훈 감독의 열정이 넘쳐서 제작진이 따라가기 벅할 정도"라며, "서장훈 감독을 비롯해 멤버들 모두가 '진짜 농구'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다. 각자의 삶에 녹아있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한섬타이거즈>의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교양본부장 민인식

했다.

그래서 올해 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것이다. 장르, 형태, 시간, 온에어 되는 채널 등을 다양화하고자 한다. 또 조직도 그쪽 방향으로 정조준할 것이다. 각 CP별로 기획팀을 두어 모든 CP가 새 프로그램의 프로듀싱에 나선다. 시니어 PD들이 기존 레귤러 프로그램을 맡아 주고 주니어 PD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이 기조는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이다.

### 새로운 '효자 프로그램'론칭 외에 다른 목표는?

동물농장사업의 진척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선점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한다. 반려동물사업은 누구나 다 유망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계의 삼성이 되는 것. 그게 동물농장사업 프로젝트팀의 비전이다.

아울러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교양D스튜디오에서도 지금은 미지인, 그러나 1년 뒤에는 타 디지털 스튜디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 장르, 형태, 시간, 채널 다양한 새 프로그램 제작에 총력 기울인다

### SBS 교양의 현황은 어떤가?

창사 이후 30년 동안 SBS는 교양, 드라마, 예능, 라디오, 보도 전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양은 경쟁력이나 지명도에서 10여 년 넘게 지상파, 종편, 케이블 그 어느 누구에게도 1위 자리를 넘겨준 적이 없다. 한마디로 '넘사벽', 그 자체다.

<그것이 알고 싶다>, <TV 동물농장>,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등이 굳건하고, 이 프로그램들의 디지털 확장 콘텐츠인 <애니멀봐>, <우와한 비디오>, <그알> 등의 성장세는 경이롭다. 듣기에 별 재미는 없지만 사실인, 그래서 영광스런 교양의 현재이다. 이 현재를 이변 없이 미래로 연결하여 '교양의 명가' 자리를 지키는 일이, 시사교양본부의 기본값으로 지향하는 미션이다.

### 교양 PD로 시작하여 외주제작 관리도 했고 사업도 진행했다. 다양한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

새로운 경험은 미덕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이듯 '이왕이면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 마다하지 않고 도전한다.

2012년 교양과 예능이 제작총괄 체제로 프로그램과 인원의 교류가 활발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제작 CP로 예능 프로그램을 맡아보겠다고 손을 들었다. 유능한 예능 후배들과 직·간접으로 얹혀 일하면서 많이 배웠다. <놀라운 대회 스타킹> MC였던 강호동과 술을 겨루다 죽을 뻔하기도 하

면서 세상에는 고수가 많다는 인생 교훈까지 보너스로 받았다. 2013년에는 콘텐츠파트너십팀장으로 외주제작 전반과 외주제작 시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6년 시사교양 국장에서 물러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었다. 그때까지의 경험치를 내가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받아들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하기에는 아직 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손들었다. 미디어비즈니스센터에서 동물농장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사업개발을 담당하면서 여러 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났고, 시장, 트렌드, 소비자에 대해 많이 배웠다.

어떤 경험이란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사람은 같을 수가 없다. 일에서의 경험 확장은 결국 조직에 기여로 이어진다. 그래서 조직은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취임 한 달이 넘었다. 당면 과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 <TV 동물농장>,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등, 이 훌륭한 프로그램들에 SBS 교양의 영광과 숙제가 같이 있다. 숙제는 바로 지금 시대에 맞는 교양 프로그램의 탄생이다. 교양의 후배들이 10년 후 그 새로운 교양 프로그램으로 영광과 숙제를 같이 떠안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지난 한 달여 시사교양본부 내 PD들과 미팅하면서 이런 요구와 필요를 공유하고 확인

## SBS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꾸러기 탐구생활> 10주년



SBS 간판 어린이 프로그램인 <꾸러기 탐구생활>이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2월 27일(금), 목동 SBS 사옥 13층 SBS홀에서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꾸러기 탐구생활>의 더빙을 맡고 있는 박찬민 아나운서가 진행한 1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본 프로그램의 출연자인 탐구대원 4명과 탐구요정으로 활약했던 배우 박민하가 감사장을 받았다. 또 2010년 1월 13일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담긴 10주년 기념 영상에는 1기 탐구대원으로 활약했던 배우 진지희의 응원 메시지까지 전해졌다.

제작진은 “SBS를 대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시도를 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꾸러기 탐구생활>은 2010년 제37회 한국방송대상 어린이청소년TV 부문 작품상,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른방송언어특별상, 2018년 제51회 휴스턴국제필름페스티벌 TV스페셜가족어린이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 <골목식당> 정우진 PD,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연출을 맡고 있는 정우진 PD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방송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콘텐츠와 산업 발전 공로자들을 위한 시상식으로 정우진 PD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영역의 예능 프로그램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우진 PD는 “골목상권에 계신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고, 시청자분들께 감동과 재미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 SBS 해외봉사단, 라오스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받아

SBS 해외봉사단이 2019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SBS 해외봉사단은 국내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나눔행복 SBS 동호회와 별도로 해외 봉사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A&T 임직원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SBS 해외봉사단은 2017년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2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선물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문구용품과 운동기구 및 노트북 컴퓨터를 전달했다. 또 현지 교사들과 봉사단에서 추진하는 “교육은 미래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교육과 비교 토론했다.

또한, 2020년 3차 학교 신축 장소인 라오스 북쪽에 위치한 무앙싸이를 방문하여 도지사와 분컷 법무부 장관, 외사부 분양국장과 구체적으로 건축 협의를 진행했고, 꿈 많은 아이들이 컴퓨터 교실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라오스 정부는 SBS 봉사단에 민간외교 문화훈장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했다. 통론 라오스 총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 교류를 부탁하며 SBS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은 라오스 방송과 신문에 기사화되어 SBS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SBS 해외봉사단이 대한민국의 NGO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SBS 해외봉사단 남완주 회장(SBS A&T 아트2팀장)은 “물

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SBS A&T 관계자분들, SBS 경영본부와 ERP팀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사우기고



## '버튼 하나를 잘 누르는 일'

- 광고팀 김민철

SBS에 입사한 뒤 주변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PD야? 기자야?”

방송사의 경영 직군에 대해 그만큼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스토브리그>가 방송되면서 경영 직군에 대해 설명해주기 편해졌습니다. PD와 기자 등이 드림즈 선수라면, 우리는 백승수, 이세영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광고주와 광고회사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SBS의 광고판매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와 PC의 거리가 멀어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입사원인 제게 엔터키를 눌러 PPT 자료를 넘기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발표자의 발언과 몸짓에 정신을 집중하며, 행여나 삽입된 영상이 잘못 재생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면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표가 두 번 넘어가거나 전체 화면이 꺼지는 등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표자의 따가운 눈초리와 순간의 정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안도감과 약간의 자괴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때나 입사한 지 1년이 된 지금이나 여전히 버튼 하나 잘

누르는 간단한 일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신입사원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카메라, 콘솔, PC의 버튼 하나를 누르기까지 선배님

들에게 수없이 물어보고, 공부하고, 때로는 눈치껏 파악하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버튼 하나를 잘 누르려는 노력들이 쌓여서 비로소 제 몫을 할 수 있게 되고,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백승수 단장이나 이세영 팀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